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4

중생근기 따라 교화하라

[원문] 번뇌단진복지원(煩惱斷盡福智圓) 위극일생보처존(位極一生補處尊) 적광토중불유(寂光土中不留意) 방대광명조불화(放大光明助佛化) 광시칠변지언음(宏示七辯之語言) 보화오승지성중(普化五乘之聖衆) -와룡산 유하시사 용화전

[번역] 번뇌를 끊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여 일생 동안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네. 적광토(寂光土) 속에 머물지 않고 대광명을 놓아 부처님 교화를 돕고 넓은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五乘)의 성중(聖衆)을 교화(教化)하시네.

[선해(禪解)] 겨울 문턱이다. 산사(山寺)의 추위는 어느 곳보다도 빨리 온다. 이때가 되면 과거 승가(僧家)에서는 한 해 울력을 해서 심은 채소를 일구어 김장을 담그는 일에 손이 바빠진다. 요즘에는 큰 사찰을 빼고도 김장을 하지 않고 사 먹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손수 대종이 담아 먹었다.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 일도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산사의 겨울나기는 그래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기가 붓도사와 같은 대사찰은 겨울 김장만 해도 몇 트럭분이나 된다.

동안겨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구름장에 불을 너무 지펴 엉덩이에 진물이 배일 정도로 뜨겁게 끓여 한기도 가만히 있지 못할 때도 있다. 때로는 문풍지에 구멍이 송송 뚫려 찬바람이 목덜미를 휘감는다. 어지간한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배어나기 힘든 게 바로 동안겨였다. 이렇듯 승가의 수행은 하안겨 보다 동안겨를 보내기가 더욱 힘들다. 소납의 수행 생활도 역시 그랬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그 때가 참으로 그리워진다. 나의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은 불철주야 오직 화두 참선에만 진작하셨다. 그래서인지 늘 겨울이 가까워오면, 은사 스님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 그때도 동안겨였던 것 같다. 스무 살 때 발심(發心)을 위해 태백산에 들어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안겨에 들어 간 스님은 두 분이 더 계셨는데 그곳의 백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나는 견성(見性)을 위해 지독한 참선 수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셋 중에서 둘은 견지지를 못해 포기하고 나중에는 나 혼자만 홀로 남게 되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해제를 보내야만 성공을 하기 때

문에 나는 맹렬하게 수행에만 전념했는데 밤마다 지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러기를 세 달을 보낸 뒤 드디어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양치질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오는 처녀를 발견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웬 처녀인가 싶어 매우 놀랐는데 문제는 거처할 방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만 해도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무언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크게 놀랐다. 결국 나는 길을 잃고 해매는 처녀에게 방을 내주고는 나는 문밖에서 웃이란 웃은 모두 깨입고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눈보라는 몰아치고 바람은 차갑게 목덜미를 휘감는데 어찌나 추웠던지 달달 이를 떨어 밥세도록 목탁을 부셔져라 쳤다. 그 순간 내 안에서는 크나큰 싸움이 일어났다. 너무나 추워 견디지를 못해 방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그런 나와의 지독한 싸움 끝에 마침내 해제 날 아침을 맞이했다. 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오하러나를 시험한 그 처녀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이 겨울은 하나의 질서이다. 그 질서를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혼란을 참지

를 유하시라 불인 것도 여름에 용이 내려와 사람과 더불어 노닐었다는 전설 때문이다.

그런데 안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라시대 이전에 장건한 절입에 비해 유하시는 19세기에 지은 절이다. 처음에는 개인 사찰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절을 장건한 무심 스님과 평생 이곳에 주석하며 지금의 유하시를 만들어낸 분은 모행 스님이다. 그래서 유하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보자.

‘번뇌단진복지원 위극일생보처존: 번뇌를 끊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여 일생 동안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네.’

용화전은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당우이다. <대예찬>의 한 구절인 이 주련의 내용은 미륵불의 위신력 중에서도 부처님을 도와 중생을 널리 교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번뇌를 끊는 미륵불은 복덕과 지혜가 가득한 ‘일생보처’라는 말이다. 즉, 부처님이 입멸한 뒤에 성불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일생보처불로서의 미륵과 내세불로서의 미륵을 혼용하고 있다. 이 주련의 내용은 전자라 보면 된다.

‘적광토중불유의 방대광명조불화: 적광토(寂光土) 속에 머물지 않고 대광명을 놓아 부처님 교화를 돕고’

적광토(寂光土)는 적정상주(寂靜常住)인 진리의 지혜에 의하여 비추어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데 공법신불(法身佛)의 세계를 뜻한다. 즉 미륵불은 부처님의 보처불로서 법신불의 세계인 적광토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세상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보살피며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광시칠변지언음 보화오승지성중: 넓은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五乘)의 성중(聖衆)을 교화(教化)하시네.’

칠번(七翻)은 여러 가지로 다른 중생의 근기를 말하고 오승(五乘)은 인승(人乘), 천승(天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가리키는 데 미륵불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이 가진 법으로써 교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하시의 용화전의 주련 내용의 핵심은 미륵불 화현(化現)에 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4

성냄·기쁨 모든 것이 공하다

[원문]

空本無動 動用同心 心本無動 故經云 動而無所動 終日去來而未嘗去來 終日見而未嘗見 終日笑而未嘗喜 終日聞而未嘗聞 終日知而未嘗知 終日喜而未嘗喜 終日行而未嘗行 終日住而未嘗住 故經云 言語道斷 心行處滅 見聞覺知 本自圓寂 乃至噴喜痛痒何異木人 只緣推尋痛痒不可得 故經云 惡業即得苦報 善業有善報 不但噴墮地獄 喜即生天 若知噴喜性空 但不執 即業脫.

공은 본래 움직이지 않으므로 움직임과 작용이 마음과 같으나, 마음의 근본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움직이되 움직인 바가 없다”하신 것이니라. 종일토록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보되 본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웃되 웃은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듣되 들은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알되 안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기뻐하되 기뻐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행하되 행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머무르되 머문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고 마음으로 행할 곳이 없어졌다” 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아

는 것이 본래 스스로 원적(圓寂, 깨달음)한 것이라 성내고 기쁘고 아프고 가려움이 어찌 본인과 다르겠느냐.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픔과 가려움을 찾지 못하겠도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 “악업은 괴로운 과보를 받고 선업은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공(空)한 것임을 알아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업력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은 하면 좋고 이것은 하면 나쁘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깁니다. 본래의 나는 아픔과 성냄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근본 실상과 하나가 되지 못해 보고 듣는 것에 끄달려 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기 못합니다. 좋다, 나쁘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반드시 인과가 따릅니다. 누구보다 자신은 정확히 알잖아요. 착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착한 일이 오고, 악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나쁜 것이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 아픔을 받았다면 내가 그 아픔을 인과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해설]

움직인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본래마음에서는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에 이르시길 “움직이지만 움직인 바가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일토록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보되 본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알되 안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행하되 행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머무르되 머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진짜 나”는 가고 오되 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본 것이 사실이고 듣고 들은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누가 내 욕을 해도 욕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물질이 아닌 마음이 작용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쓸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말한 것이 아니고, 욕을 해도 욕을 한 것이 아니고, 본 것도 본 것이 아니니, 번뇌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로부터 얻히고 실킨 입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 업을 녹일 수가 있고 언젠가 수행을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틀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전생의 업력과 습이 남아 있기에 잘 안되는 것입니다. 꿈이 본래는 단 것이 아닌데 달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 하잖아요. 그렇게 각인이 되고 습이 되어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무수히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입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고 마음으로 행할 곳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자와 언어가 끊어진 자리, 즉 ‘체(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아픈 것도 없고 가려운 것도 없는데 전생의 습으로 인해

이것은 하면 좋고 이것은 하면 나쁘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깁니다.

본래의 나는 아픔과 성냄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근본 실상과 하나가 되지 못해 보고 듣는 것에 끄달려 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기 못합니다. 좋다, 나쁘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반드시 인과가 따릅니다. 누구보다 자신은 정확히 알잖아요. 착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착한 일이 오고, 악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나쁜 것이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 아픔을 받았다면 내가 그 아픔을 인과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공(空)한 것임을 알아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업력에서 벗어나리라.”

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도리는 바로, ‘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보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염불할 때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업에서 벗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나 심 본, 삼심 본 정진을 한다고 하면 그 순간은 분명 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양산 통도사 응진전 외벽에 그려진 달마도(19세기 후반).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현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개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연방,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빛깔과 향기가 살아있는 맛 삼광사와 함께하는 전통사찰음식 전시회

절제된 생활이 만들어낸 밥상인 전통사찰음식의 대중화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모시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광사
• 주 최 :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
• 주 관 :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 문 의 : 삼광사 051)808-7111~5

프로그램

Table with 2 columns: Program Name and Time. Includes items like '제 1 부 개회식', '제 2 부 사찰음식 전시관람', '제 3 부 공연'.

※ 석용스님의 '마음으로 피운 꽃', 지화특별전

